

피난지 부산에서 경희의 초석을 다지다

1951년 2년제 신홍초급대학 인수, 1년 7개월 만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
교사 건물 화재로 위기 맞았으나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학교 재건



경희대학교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새겨넣은 교시탑. 1955년 7월 24일 건립됐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 들어 서면 약 150미터 전방에 잘 가꾸어진 숲과 어우러진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경희대학교 창학이념을 새겨 넣은 교시탑(校是塔)이다.

1955년 7월 24일 건립된 이 탑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은 미원 조영식 박사의 삶과 경희의 역사를 상징하듯이 우뚝 솟아 있다.

미원 조영식 박사가 교육에 뜻을 품고 피난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했을 때 나이는 불과 30세였다. 당시 그는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꿈꾸던 정치 지망생이었다.

인생의 진로를 바꿔 교육자의 길을 택한 뒤 그는 사상가로서, 실천가로서, 평화운동가로서 다양한 삶의 궤적을 밟아왔다. 그 바탕에는 일관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

다. 그것은 경희대학교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요약돼 있다.

목사의 길 꿈꾸었던 소년 조영식

1921년 11월 22일 금 산지로 유명한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조영식의 어린적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신음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는 우리 민족이 신의 보살핌 아래 구원받기를 소망했다.

광산을 경영하는 부친 조만덕(趙萬德)으로부터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소년 조영식은 늘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다.

목회 활동을 위해서는 강건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싱과 체조, 달리기 등으

로 신체를 단련했다. 소년 조영식은 어느덧 지·덕·체를 겸비한 스포츠맨으로 성장했다.

해방 전, 목사의 길을 꿈꾸며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체육대학에 입학했다. 1943년 10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잠시 귀국해 평생의 반려 오정명과 결혼했다. 태평양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신흥 생활 3개월째인 1944년 1월 그는 평양에 주둔한 일본군 48공병부대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다.

“일제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

훈련소로 끌려간 그는 '일제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훈련소 탈출을 결심하고 조선인 학도병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생사를 건 모험이었다.

그러나 거사 직전 정보가 유출됐다. 악명 높은 일본군 헌병대에 끌려가 모진 고



1953년 3월 신축된 부산 동대신동 교사(왼쪽). 그 전까지 사용됐던 동광동 교사는 1952년 12월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지 40일 만에 화재로 전소됐다.

문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1945년 1월의 ‘평양 학도병 의거 모의사건’이다.

약 1개월간의 취조와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은 청년 조영식의 인생관, 민족관,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그는 함께 수감된 동지들에게 제안했다.

“비록 혹독한 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후시나 살아남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무의미하게 소일만 하지 말고 무언가 미래를 위해 일할 준비를 하자.”

입을 책이 한 권도 없었으므로 그 ‘준비’는 각자가 배운 지식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토론식 학습으로 진행됐다.

훗날 조영식 박사는 “우주와 삼라만상의 변화 속에서 인생을 명상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그 통합과 조화라는 삼차원적 우주관, 유기적 통일체관의 근원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 시절을 회고했다. ‘미원’이라는 아호 역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며 근원을 향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토론 학습 경험에서 비롯됐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정치계에 입문

1945년 8월 15일, 전 민족이 염원하던 해방의 날을 맞았다. 그러나 38선 이남은 미군이,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어 조국의 독립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해방 이듬해 청년 조영식은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다. 남이

건 북이건 조국과 민족이 처한 현실은 참담했다.

국민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농업 기반은 일제의 수탈에 의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45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률이 73.5%에 달했다.

1948년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정부가 수립됐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우익과 좌익의 충돌은 전국적 폭력 사태를 가져왔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계층인 까닭에 청년 조영식은 체육교사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정된 교사 생활을 내려놓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편입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초한다’는 생각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법대 동기생 문인구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재학 시절 ‘1만 시간 독서 계획’을 세울 정도로 공부에 열심이었다.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독서량이었다.

1948년 법학도 조영식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첫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을 펴냈다.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그의 포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1950년 여름 6·25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그는 정계에

입문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하나인 ‘공화민정회’ 조사국장 겸 법제사법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달리 현실의 정치는 청년 조영식에게 실망을 안겨 줄 뿐이었다. 그는 극심한 국정 혼란과 정치가들의 저열함, 혼탁한 정치문화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는 좋은 정치로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쟁 중에 교육사업이 제 정신이나?”

그러던 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해달라는 것이었다. 제안자는 부산으로 피난해 있던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었다.

신홍초급대학은 1946년 설립된 배영대학관과 1947년 설립된 신홍전문학관이 합병해 1949년 가인가로 설립된 2년제 대학이었다. 영어과, 중국어과, 체육과 등 3개 학과에 모집 정원은 각 50명씩 총 150명에 불과했다.

신홍초급대학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어려웠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뒤에는 학교 문을 열 형편이 안 돼 졸업생조차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도 대지도 없는 ‘천막 대학’이 가진 것이ら곤 1,500만 원의 은행 빛과 밀린 월급뿐이었다.

학교를 인수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부산 동대신동 교사 정문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을 써넣었다.

주변에서는 “전쟁 중에 교육사업이라니 무슨 소리냐, 정신이 있느냐”며 극구 만류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시영 선생이 세 번째로 사람을 보내왔을 때, 정치 지도자의 삼고초려에 감복해 결단을 내렸다.

2년제 초급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생각의 과정은 길었지만 실천은 빨랐다. 조영식 박사는 학교를 인수한 지 2주일 만에 부산역 바로 맞은편 동광동 5가 3번지 언덕 위에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사재 1,800만 원을 들여 본부 건물 1동과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건물 2동을 신축했다.

그해 8월 20일 개강할 당시의 학생은 새로 모집한 74명과 전쟁 전에 입학한 48명을 합해 총 122명이었다.

학생 수는 적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열의는 높았다. 조영식 박사는 1인 3역을 도맡았다. 재단이사장과 학장직을 겸임하면서 재정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는 한편 교직원들과 토론하며 행정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다. 직접 강단에 올라 ‘민주주의론’을 강의했다.

학교가 안정되자 조영식 박사는 재단을 확충하고 문교부에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초급대학 정식 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한 학기가 지날 무렵 학생 수는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해 12월 9일에는 4년제 대학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다’(教育立國)는 조영식 박사의 꿈은 더 크고 담대했다. 4년제 대학 승격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때 이미 다양한 학문이 소통하는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종합대학 설립의 꿈

그는 백의중군의 각오를 다졌다. 재력가들을 만나 자신의 포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스로 재단이사장직과 학장직을 내놓고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이사진이 새로 구성되고 학교 재정이 확충돼 종합대학 설립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1953년 1월 9일 예상치 못했던 화제가 발생했다. 공들여 지은 교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지 불과 40일 만의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 끌어들인 이사장과 학장도 모두 사표를 내고 손을 뗐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신흥대학과 조영식 씨는 망했다”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좌절을 몰랐다. 또다시 이사장직과 학장직을 겸임하며 밤낮없이 학교 재건에 나섰다. 부산 동대신동 2가 87번지의 땅 700평을 구입했다. 그리고 착공 2개월 만인 3월 20일 새 교사를 건립했다.

2억 5,000만 원을 들여 새로 지은 학교에는 대강의실과 일반강의실 7개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이 들어섰다. 400평 크기의 운동장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아름답게 꾸민 화단도 조성됐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훈 제정

동대신동 교사 건립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교문의 양쪽 기둥과 건널판에 폭 70센티미터의 목판 3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선명한 페인트 글씨로 교훈을 써넣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훈이 제정된 것은 1951년 신흥초급대학 인수 직후의 일이다. 그해 8월 20일 동광동 교사에서 첫 개강을 하면서 조영식 박사는 교육 목표와 교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 대학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

이 같은 창학정신은 전문(前文)과 3개항의 본문으로 다듬어져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1952년 12월 9일 공포됐다. 그것이 동대신동 교사 신축과 함께 대중적 선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억될 것은 1953년 3월 30일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는 사실이다. 이날 1회 졸업생 45명이 정식으로 배출됐다.

동대신동 교사 건립은 조영식 박사 개인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는 위기 앞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기는커녕 도전정신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열정과 의지를 단련했다.

당시 그는 “불에 구우면 구울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쇠는 더 굳어지고 강해진다”는 말을 되뇌곤 했다. 이때의 경험이 서울 캠퍼스를 건설하고 오늘날 경희대학교를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게 하는 밑거름이었다.